자기소개서

부회장 출마 후보자: 부이응우엔치

저는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부이 응우엔 치입니다. 대학원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연구와 수업은 물론, 생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기에,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저의 역량과 비전을 소개드리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학생회를 이끄는 데에는 리더십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교적인 성격과 총학생회 활동, 대학원 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학교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또한 협력과 팀워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특히, 저는 그룹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학우들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원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 대학원 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영남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경험을 통해 대학원 생활의 현실적인 고민과 도전들을 직접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학생들의 복지와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학생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어가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지닌 학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아울러 정신 건강 상담, 커리어 상담,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혼자 버텨야 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함께 지지하고 성장하는 대학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